

협회소식

73년도 춘계 학생기생충 검사 671만명 실시 전국 초·중·고등학생의 86.2%가 검사에 응함

73년 4월부터 7월까지 한국기생충 박멸협회에서 실시한 춘계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생기생충 관리 사업은 문교부와 보건사회부를 비롯하여 각 시·도 교육위원회, 각 교육청, 학교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협조와 학생 및 학부모들의 기생충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으로 대부분의 학생이 기생충 검사에 응하였다.

73년 춘계 검사결과는 작년 추계에 비하면 약 1,400,000여명에 달하는 새 검사자가 검사를 받은 것이다.

이 검사 결과 발견된 회충 감염자 3,558,999명에 대하여는 본 협회에서 보건사회부의 지원을 받아 무료로 구충제를 투여하였고 12지장충 감염자 24,249명에 대하여도 무료로 구충제를 투약하였으며 폐디스토마 감염자 1,221명에 대하여는 보건사회부와 각 보건소의 협조로 보건소에서 치료를 하였다.

기타 기생충의 감염자에 대하여는 협회 본 지부 부설의원에서 실비로

치료를 받거나 기타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도록 지도와 조치를 하였다.

금년 춘계 전체 학생의 회충 감염율은 53%로 전년도 춘계보다 3.6%가 증가되었으나 이는 1년이상 관리를 받지 않은 학생 1,400,000여명이 처음으로 관리에 참가 함으로서 이들의 감염율이 높았다는 것이 주된 원인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므로 수검자들이 주의할 사항은 기생충질환은 만성 전염병인만큼 재감염의 기회를 방지하여야 하고 년 2회이상 정기적으로 검사와 구충을 하여야만 효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1년에 2번이상 정기적 관리를 받아야만 한다.

한국기생충박멸협회에서는 춘계에 검사를 받은 학생은 추계 검사에도 권장이 반드시 검사를 받을 것을 권장하고 있다. 또 재감염의 기회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학부모 및 가족도 년 2회검사를 받는다면 더욱 급속히 감염율이 저하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973년 공무원 기생충검사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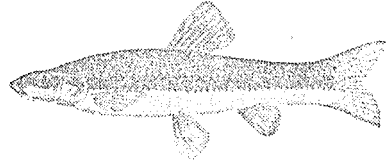
1973년도 공무원 건강진단 계획의 하나로 본 협회에서는 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기생충검사를 실시한다.

기생충에 대한 예방의식을 고취시켜 기생충질환을 미연에 방지하여 공무원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1973년 9월21일부터 10월30일 까지 40일간에 걸쳐 검사한다.

검사는 집단검사에서 중란 검출율이 높은 세로판후충도말법으로 하며 검사결과에 따라 최종감염자는 무료로 투약하고 기타 기생충에 감염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자가치료토록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협회검사원들의 기생충 검사광경>



<간디스토마를 매개하는 제2 중간숙주인 참붕어>

간디스토마 제2중간숙주 지역별 분포상태조사

협회에서는 1973년도 조사연구사업의 일환으로 간디스토마 제2중간숙주의 지역별 분포 상황조사를 보건사회부와 공동으로 1974년까지 2개년에 걸쳐 실시한다.

제1차 조사는 1973년 8월 1일~9월 30일, 제2차는 1974년 4월 1일~5월 30일, 제3차 조사는 1974년 8월1일~9월 30일까지 실시한다.

각 시·도지부 관내의 1개 지역을 선정하여 169개 시군에서 간디스토마 제2중간숙주인 담수어류를 종류별로 검사하여 메타셀카리아 기생상태와 분포상황을 조사하게 되는데 검사결과 는 기생충관리 방안의 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